2018년의

김정은최고령도자

2018년의
김정은최고령도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주체108(2019)년

머 리 글

력사의 흐름속에서 한해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과 같은 한해동안에 조선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많은 대상들이 일떠서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과시되였다.

특히 2018년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세차례의 조중수뇌상봉, 력사상 첫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극적사변들이 일어났다.

하여 대결국면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세계의 초점과 관심을 모은 극적사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2018년 한해동안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자욱을 더듬어 찾으려 한다. 독자들이 그 자욱속에서 조선의 리상과 힘, 그 실현과 세기의 종착점과 위력을 그려보는데 이 책이 적으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차 례

1.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로따라

새해의 첫아침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8년 새해 첫아침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지나간 한해에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속에 감회깊이 추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한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새해의 소원과 우리 인민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총화하시면서 이 모든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군대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면서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

새해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이라고,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라고, 모두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력사적인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신에 넘친 우렁우렁한 음성은 조선인민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는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2018년에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진로를 밝혀준 전투적기치로, 표대로 되였다.

자력자강의 고향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큼직큼직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제2차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전선을 다른 모든 전선의 앞에 내세웠다고 하시면서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을 관철하는데서 중심고리는 과학기술을 앞세우는것이라고, 과학기술을 앞세워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자는것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의 기본사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앞에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똑똑히 자각하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창조전, 탐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전시관에 전시된 과학연구성과자료들과 전시품들을 돌아보시였다.

오늘 국가과학원 과학전시관은 자력자강의 보물고로,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으로 불리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국가과학원 현지지도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온 세상에 다시금 과시하였다.

교육자양성의 원종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여 연혁소개실, 교육과학전시관 등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개건현대화정형과 교수교양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교원대학을 매우 중시한다고, 자신께서는 교원대학에서 양성하는 교양원, 교원들이 후대교육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교원대학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학생들을 한등급 높은 단계의 교육사업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교양원, 교원들로 준비시키는것, 바로 이것이 교원대학이 내세우고 투쟁해야 할 목표이라고, 사범교육부문에서는 이것을 중요한 정책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원대학에서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없다고, 대학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교원대학이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고 교수내용과 방법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조선에서는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게 되였다.

또한 대학교육의 본보기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 조선을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새로운 전략적로선 제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가 4월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가 제시하였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로선이 밝힌 력사적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였다는것을 선언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도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하여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서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첫째 의정으로 토의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명맥을 창창하게 이어나가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는 조선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함으로써 나라를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고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워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월에 어랑천5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전소의 조종실에서 발전기들의

가동상태를 료해하시고 이제는 한계단 높은 수준의 발전기를 생산할 때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발전설비생산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에서 효률이 높은 발전기를 생산하는데 리용하고있는 최신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함경북도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체의 과학자, 기술자력량을 강화하고 생산자대중을 현대과학기술로 무장시키며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의 올해 농사작황도 알아보시고 농사를 잘 짓자면 알곡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사를 잘 짓자고 하여도 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건설할 때처럼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넣어 모든 인적, 물질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밀고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함경북도에서는 군민협동작전을 과감히 벌려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와닥닥 끝내야 한다고 특히 팔향언제건설과 어랑천4호발전소건설은 다음해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랑천5호발전소에서는 설비관리를 잘하고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으며 도의 전기문제를 푸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바다양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월에 바다련어양어사업소와 대서양련어종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돌아보시면서 바다양어, 그물우리양어를 과학화, 공업화하기 위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다의 생태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대서양련어양어에 알맞는 적지수역을 확대전개하여 곳곳에서 더 많은 대서양련어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련어가공품생산의 과학화, 자동화,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위생안전성과 품질을 철저히 담보하며 규격화, 표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대서양련어종어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알받이와 알깨우기, 새끼고기생산을 정상화하고 식물성먹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다량생산하며 과학적인 종어보존체계를 세우고 종어가 퇴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수산자원과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며 바다양어, 양식, 민물양어를 광범히 벌리고 새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방류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련어양어사업소와 련어종어장이 훌륭히 꾸려짐으로써 조선에서 대서양련어를 안전하게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애국심의 결과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월 강원도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강원도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황폐화되여가고있는 산들을 푸르게 하기 위한 산림복구전투,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에로 전당, 전민을 다시한번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며 강원도가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원도양묘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 자신께서 강조하였지만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혁명적기풍은 우리가 가장 빨리 발전할수 있는 원동력이며 우리의 제일 값비싼 재부이고 자원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강원도인민들처럼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이 땅우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양묘장전경을 바라보시면서 강원도양묘장의 풍경이 희한하다고, 정말 멋있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강원도양묘장은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

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 일떠세운 애국심의 결과물이라고, 강원도 인민들의 투쟁기풍, 일본새를 모두가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월에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10년 1월에 조업한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150여가지의 당과류와 식료가공품을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이 소문을 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속에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진다는것은 공장에서 일을 잘하고있다

는것을 의미한다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정상화와 공장관리운영의 과학화, 현대화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당정책의 정당성을 실증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미전에도 말하였지만 강원도는 당정책집행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정신은 전후복구건설시기 천리마시대를 탄생시킨 천리마정신과 같은 시대정신이라고, 강원도정신의 진수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여야 한다는 관점,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으며 자기가 살아나갈 길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립장이 바로 강원도정신의 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원도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전국의 앞장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오늘 강원도는 모든 분야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있으며 전국이 그것을 따라배우고있다.

인민들에게 고급어족을 먹이시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에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찾으시였다.

연풍호는 쏘가리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하여 연풍호기슭에 쏘가리알깨우기와 새끼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는 종어기지가 생겨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에서는 종어기지로서의 자기의 사명에 맞게 쏘가리를 비롯한 새끼물고기들을 대량생산하여 연풍호에 방류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것은 후대들을 위한 영예로운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전국도처에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와 같은 종어기지들을 잘 꾸리고 관리운영하면서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한 수산자원보호증식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자연수역들에서의 방류어업과 양어업을 활성화해나가면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인민들에게 쏘가리와 같은 고급어족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줄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건설하여 생긴 저수지들에서는 그물우리양어를 하도록 하며 각 도, 시, 군들에서는 종어기지들을 실정에 맞게 꾸리고 새끼물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야 수산자원을 계속 보호하고 증식시켜 인민생활을 높여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업소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연풍호에 쏘가리떼가 욱실거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수산자원보호정책을 높이 받들고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들에게 맛좋은 물고기들을 더 많이 보내줄 결의를 다지였다.

의료기구공장의 본보기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에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보건부문의 실태를 료해하시고 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물려주신 유산이라고 하시면서 보건부문을 일떠세우는것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인민적시책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병원부문을 비롯하여 제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들에 대한 물질적인 보장사업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의료기구공업실태를 료해하고 대책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고 하시면서 한심하고 뒤떨어진것은 없애고 선진적인것으로 교체하여 앞세워나가면 되는것이라고, 뒤떨어졌다고 락심해할것은 없다고 공장의 일군들에게 신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자면 자신의 생각에는 보건부문에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의료기구공장들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우리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대적인 의료기구공장으로 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의료기구공장들을 모두 개건현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자신께서 천리마를 보내주겠으니 그것을 타고 나라의 보건부문, 의료기구공업부문을 선도해나가야 하겠다고, 모두 일을 잘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나라의 맏아들대학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시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이께서는 김책공

창립 70돐을 맞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업종합대학의 사명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원종장, 중심이라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이 경제건설과 과학연구, 기술개발의 전구마다에서 제구실을 하여야 우리 혁명이 전진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새 세기 정보산업혁명의 기관차, 중추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우리 혁명의 동력을 키워내는 나라의 맏아들대학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학교육의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면서 앞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에서 다른 나라 일류급대학들과의 교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교육의 질을 한계단 높이고 과학기술연구를 통하여 달성해야 할 당면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렇게 하여 대학창립 70돐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첨단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2.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며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에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은 제약공업부문이 뒤떨어져있지만 우리에게 과학기술력량도 튼튼히 마련되여있고 화학공업토대도 있는 조건에서 약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내밀고 제약공장들에 보장해주면 얼마든지 제약공업부문을 추켜세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는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사회주의보건사업, 인민들의 건강증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히 보건부문앞에 나서는 정책적인 과업인것만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요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은 사회주의보건의 혜택이 자기의 피부와 살에 와닿아야 당의 인민적보건시책을 믿게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당의 인민적시책이 좋다는것을 느끼도록 하는데서 보건이 첫번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을 개건하는것이 나라의 제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제약공장을 나라의 제약공업의 중심, 본보기로 꾸리고 다른 제약공장들이 다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평양제약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더 높은 현대화목표를 제시하시면서 인민을 위한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맹세를 다지였다.

수도의 려객수송문제해결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에서는 무궤도전차조립공정을 원격조종화하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여 종전보다 로력과 전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보급실과 도안창작실을 훌륭히 꾸려 종업원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준비할수 있게 되였을뿐만아니라 문화성이 보장된 무궤도전차들에 대한 도안창작도 잘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도의 려객수송문제를 푸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들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고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구내에 세워놓은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를 보시고 보기 좋다고 하시면서 무궤도전차의 외부와 내부를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며칠후 늦은 밤 무궤도전차를 타시고 시내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며칠전에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었는데 겉모양만 보아서는 그 성능이 어

면지 알수 없다고, 우리 인민들이 타고 다닐 무궤도전차인데 자신께서 직접 타보아야 마음이 놓일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함께 무궤도전차를 타고가면서 인민들의 립장에서 부족점이 없는가 하는것을 꼼꼼히 살펴보자고 하시며 무궤도전차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런 무궤도전차를 자체로 만든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긍지스럽다고,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무궤도전차를 타니 제 집안에 들어앉은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타보았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비록 부족점은 좀 있지만 모든것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자력갱생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런 창조물들을 마주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에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시면서 생산정형과 공장의 현대화정형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우리는 인민들이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그 별을 따주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의 투쟁강령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송산궤도전차사업소를 찾으시여 새롭게 만든 궤도전차를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궤도전차의 내부를 돌아보시며 이번에 수도려객운수국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뻐스수리공장에서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궤도전차에서 내리시여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돌아서시여 다시 궤도전차를 바라보시며 궤도전차를 잘 만들었다고, 궤도전차가 미남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새형의 궤도전차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새형의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밤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궤도전차에 오르시여 이번에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새형의 궤도전차를 만들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자력갱생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려객운수문제, 대중교통운수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에 오르시여서도 전차안을 주의깊게 둘러보시고 방금 타본 궤도전차도 그렇고 이 무궤도전차도 다 매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년중 제일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수도의 거리로는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자력갱생의 힘을 시위하며 기세좋게 달리고있다.

평양을 대표하는 인민봉사기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월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돌아보시였다.

식당에는 각종 민물고기와 바다물고기실내못들과 다양한 형식의 식사실들, 가공품매대들이 꾸려져있어 인민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펄펄 뛰는 여러가지 고급어족들을 즉석에서 료리하여 봉사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에서 올린 식당건설자료를 보고 설계와 시공을 잘했다고 평가하였는데 실지 와보니 정말 멋있고 특색있다고 하시면서 식당의 이름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새로 건설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군인건설자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또 한가지 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여났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실내못들에서 유유히 헤엽치는 철갑상어, 룡정어, 련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가공품매대들을 보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높은 수산물료리와 가공품을 봉사받게 되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대중식사실과 가족식사실, 민족료리식사실을 비롯한 여러 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식사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도 맛보게 하며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손님들에게도 봉사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오늘 누구나 즐겨찾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흥성이며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우리의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월에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품공장에 언제부터 한번 와보고싶었다고, 최근에 공장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오늘 시간을 내여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최근 몇년동안 화장품의 질을 높이고 화장품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화장품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기술과 국내원료에 의거하여 화장품을 개발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제로 내

세우고 그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새 제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자기 공장에서 개발한 화장품들의 고유한 특색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장품에 대한 요구는 지역별로도 다를뿐아니라 사람들의 년령과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기때문에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는 사람들의 성별과 년령별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기초화장품들을 잘 만들며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 생산하는 화장품과도 품질을 대비분석해보면서 미약한 부문은 보강하고 좋은 부문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상품에 대한 평가는 질이 어떤가 하는데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얼마나 유명한가 하는데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시면서 상품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라고, 앞으로 이 공장화장품들의 질을 높이고 포장을 다양하게 한 다음 광고와 선전을 잘하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 화장품보다 더 좋아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남의것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우리의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것을 무턱대고 좋다고만 하지 말고 나쁜것은 비평도 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것이 발전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갱신하고 수요자들의 기호와 년령, 체질별특성에 맞게 품종들이 늘어나고있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은 나라의 화장품공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하고있다.

공장의 주되는 목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월에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959년 9월에 조업한 신의주방직공장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천을 생산하는데서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방직공장을 새 세기에 맞는 공장으로 일신시키는데서 주되는 목표는 공장을 로력절약형공장으로 만드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경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는 갈을 원료로 하는 인조섬유공업을 한계단 올려세워야 한다고, 인조섬유공업을 추켜세우는것은 우리 경공업을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공업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공장 합숙생들에게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기 위하여 몸소 합숙터전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동원시킬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삼지연군을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월에 삼지연군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자산지들에 감자가루생산공장을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 생산한 감자가루를 맛보았는데 감자의 고유한 맛이 그대로 났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감자가루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감자가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올해 감자농사정형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자면 삼지연군에서 감자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삼지연군에서는 감자파종을 적기에 질적으로 하고 감자밭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장의 제1작업반 포전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산작업의 기계화비률이 얼마인가를 알아보시고 먼저 중흥농장을 종합적기계화의 본보기로 잘 꾸린 다음 그에 기초하여 군안의 모든 농장들을 종합적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실현된 우리 나라의 표준으로, 농장원들의 리상이 현실화된 종합적기계화농장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낡은 기준을 가지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시대에 따르는 새로운 기준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선진기술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삼지연군에 맞는 새 농법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량강도의 감자농사

문제로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꼭 풀어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에 감자농사를 잘 지어 통장훈을 불러야 하겠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는 건설부문에서 일대 도약기, 하나의 혁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지방건설을 하는것을 보면 이미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이번 기회에 도약하여야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있는 삼지연군꾸리기가 지방건설을 발전시키는데서 하나의 고비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는 인민들의 편의를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산간지대의 특성을 적극 살리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꾸리는 사업에 전당, 전국이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꾸리기에서 삼지연군사람들이 주인으로서 자기 몫을 하여야 한다고, 온 나라가 달라붙어 꾸려준다고 하여 자립성과 자력갱생정신이 희박해지면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40일만에 삼지연읍지구건설장에 와보는데 그사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고,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산간문화도시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백옥같은 충성심으로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이 힘찬 투쟁을 벌려온 결과 드디여 웅장한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백두산아래 첫동네에 우리의 사회주의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들끓는 건설장전역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고, 저렇듯 훌륭한 인민과 함께라면 이 세상 그 어디라도 두렴없이 갈것이라고, 전체 건설자들에게 자신의 동지적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이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그이의 원대한 구상대로 백두산아래 첫 동네를 산간지대의 문명도시,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울 열의를 안고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0월 삼지연군을 세번째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읍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8월에 와보았을 때 골조공사가 한창이였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삼지연군이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삼지연군 읍지구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것이지만 조급성에 사로잡혀 절대로 속도일면에만 치중하면 안된다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건설사업을 실속없이 하면 인민들과 후대들로부터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만년대계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자저장고안에 무득히 쌓여있는 감자산을 보시고 삼지연군에서 올해 례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자가루가 대대적으로 생산되는데 맞게 인민들에게 감자가루의 우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 감자가루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널리 소개선전하여 식생활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월에 삼지연군에 와서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제시 2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하였는데 군에서 그 과업을 집행했다고 거듭 높이 치하하시면서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일군들과 함께 감자무지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대규모남새온실농장건설을 발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을 꾸리실 구상을 안으시고 7월 현지에 나가시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온실농장건설준비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여 부지를 직접 료해하시고 남새온실농장건설전망계획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광활한 옥토를 바라보시며 여기에 100정보의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멋있을것이라고,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내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창하고 방대한 규모의 남새온실농장건설이므로 인민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함경북도인민들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고 마음먹고 마련해주는 농장인것만큼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원들의 주택지구와 문화후생시설도 도시부럽지 않게 현대적으로 문명하게 지어주어 농장마을을 그야말로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사회주의락원으로 훌륭하게 꾸려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포온실농장건설준비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8월 또다시 현지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실농장부지가 대단히 넓은 조건에서 이 지구에 강원도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도 같이 건설하여 이 지구를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정책이 집대성된 구획으로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하는 온포온실농장을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와 온실농사와 관련한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 최상급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실과 양묘장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도에서는 온실관

리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대렬을 꾸리는 사업을 선행시켜 건설이 끝나면 즉시 생산과 운영에 착수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하나를 만들어도 품을 들이도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7월에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우리 당이 후대교육중시사상을 제시하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온 나라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가방, 교복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것은 그들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럼없이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우리의것을 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후대교육사업에 필요한것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서라도 모두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것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애국의 마음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학생가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품을 들여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생가방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식에게 제일 좋은 가방을 메워주고싶어하는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한개의 학생가방을 만들어도 자기 자식의 어깨에 메워줄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품들여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당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공장종업원들의 대다수가 영예군인들인것만큼 그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과 생산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보위의 그 정신으로 일하는 우리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우대해주며 생활을 잘 돌봐주어 그들이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뜨거운 마음을 보람있게 바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원산영예군인가방공장에서는 맵시있고 질좋은 학생가방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쟁로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7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적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이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서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조국에 대한 불타는 충정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용감히 싸워 승리의 7.27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멸의 위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전체 전쟁로병들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들인 전쟁로병들이 로당익장하며 후대들의 심장마다에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심어주는 훌륭한 스승, 교양자로 생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실리가 큰 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에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삼천메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더욱 훌륭히 일신시키고 년간메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천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넉넉히 먹이시려고 메기양어의 새 력사를 펼치던 초시기에 건설하여주신 우리 나라 메기양어의 맏아들공장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품을 들여 개건현대화한 공장인것만큼 능력대로 해마다 메기를 어김없이 생산함으로써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실지 덕을 보는 공장으로 명예를 떨쳐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랭동저장고에 들리시여 랭동된 메기들을 보시고 마치 금괴를 쌓아놓은것만 같다고, 정말 보배공장이라고 거듭 칭찬하시면서 온 공장이 당의 양어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끓이며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공화국창건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70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는 메기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메기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으며 조선에서 메기풍어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고있다.

서해포구의 보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에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젓갈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가공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지도하시여 금산포지구에 일떠세워주신 식료가공기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전시실에 전시된 시제품들을 보시면서 가지수가 정말 많다고, 한가지 물고기를 가지고도 이것저것 할수 있는것은 다 해놓은것 같다고 하시면서 군침이 돌게 포장도 잘하고 형식도 다양하다고, 젓갈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것이 알린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제품저장고를 찾으시고 저장고안에 꽉 채워져있는 젓갈가공품들을 바라보시며 정말 볼만 한 멋있는 풍경이라고, 처음 건설하는 젓갈가공공장이여서 생산성이 담보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젓갈제품들을 보니 자부심이 생긴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래도록 저장고를 거니시며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서해포구의 보물고나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헌신적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으로 투쟁함으로써 공화국창건 70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고 어머니당에 큰 힘을 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위훈을 높이 치하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양덕군안의 온천들은 류황성분이 많고 라돈이 극히 적은 고온천으로서 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약리적작용과 치료효능이 높을뿐아니라 온천수성분을 분석해본데 의하면 오염성평가지표인 암모니움과 아질산, 질산이온들과 병원성미생물이 전혀 없어 오염되지 않은 온천으로 평가되였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 지구에 종합적인 료양 및 문화휴양지를 훌륭하게 개발하려고 결심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높낮은 산발들과 험한 령길을 헤치시며 양덕군 온정리일대의 온천골들을 돌아보시면서 온천의 용출량과 주변환경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산이 높고 숲이 무성하여 공기좋고 풍치수려한 양덕군은 온천휴양소, 료양소들을 꾸리기에 적중하다고 하시면서 종합려관을 건설할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 지구에 종합려관을 덩지가 크게 앉히고 주변에는 자취숙소들도 잘 꾸리며 각종 현대적인 종합봉사시설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리고 각종 온천욕봉사를 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천지구개발사업을 인민의 행복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인 인민군대가 맡아하여야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빠르게 진척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모든것을 전적으로 맡아 온천지구를 훌륭하게 전변시켜 인민들에게 선물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0월 또다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현장에 달려나온 인민군부대 군인들이 기세충천하여 만단의 공사준비를 갖추고 대기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당에서 구상한 대상건설을 힘있고 솜씨있는 이 련합부대에 맡겨놓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일당백의 전투력으로 명성높은 련합부대의 장병들이 당의 신임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온천관광지구건설에서도 또 한번 본때를 보이며 소문을 낼것이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우리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는데 현재 조건이 특별

히 좋고 여유가 있고 풍족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의 최고봉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확고한 결심과 강렬한 의지에 의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일떠세우는 하나하나의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온천관광지구건설을 통채로 맡겨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인민의 장한 아들딸들답게,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답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또 하나의 인민의 소유물을 훌륭히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0월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극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극장은 우리 나라의 극장들중에서 력사가 제일 오랜 건물들의 하나인 모란봉교예극장을 독특한 건축양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음향학적으로 완벽한 생울림극장으로서의 특성을 갖춘 관현악단 전용극장으로 개건된 건축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시간에 걸쳐 극장의 외부와 내부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극장 연주홀의 여러 위치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시며 음향특성들을 대비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연주홀의 음향이 정말 좋다고, 악기들의 생울림소리가 변색없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울림이 좋으니 관현악연주가 깨끗하고 섬세하게 들리며 정서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악단의 품위도 한결 돋군다고 하시면서 건축음향분야에서 일대 혁신이고 성공한 극장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개관을 앞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은 당창건 73돐을 맞는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극장을 받아안게 된 삼지연관현악단의 전체 예술인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극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귀중한 재보이며 향유물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최상급에서 진행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 결의를 다지였다.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을 찾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1월에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5월27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겨울철집중어로전투에 진입한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의 물고기잡이실적을 매일 보고받고있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어로공들을 만나 고무해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몸소 《황금해-014》호 고기배에 오르시여 만선하고 귀항한 선장과 어로공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고기배에서 금방 잡아온 물고기를 퍼올리는 모습과 야외하륙장에 쏟아지는 물고기폭포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다고 하시면서 이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어로공들과 종업원들을 부르시여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랭동저장고에 꽉 들어찬 물고기블로크들을 보시면서도 보물산이라고, 금괴같다고, 집중어로전투기간

며칠사이에 벌써 이렇게 저장고에 거의다 채워놓았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지금처럼 나가면 잡은 물고기들을 저장고에 들여놓지 못할것이라고, 앞으로 급동능력을 년차별로 2~3배 더 조성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8월25일수산사업소는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이다. 이 수산사업소는 나라의 수산부문이 다 주저앉았을 때 당에서 수산전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의 불씨를 지펴준 사업소이다. 바로 여기에서 《단풍》호고기배들이 첫 출항을 한 때로부터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새로운 대중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랭동저장고들을 돌아보시면서 저장고마다에 수천t의 물고기를 꽉 채워놓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봉화를 지펴올린 선구자, 본보기단위답게 앞으로도 황금해력사창조의 항로를 줄기차게 이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이 수산사업소는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물고기를 정상공급하기 위하여 일떠선 사업소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를 조직할 당시에는 수산사업소에서 해마다 물고기를 잡아 전국의 모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매일 300g의 물고기를 정상공급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었는데 물고기잡이전투를 힘

동해안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있게 벌려 이제는 하루에 400g씩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8일수산사업소는 자신께서 제일 중시하는 수산사업소라고 하시면서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의 맨 앞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어로신화들을 계속 창조해나감으로써 온 나라 수산부문을 힘있게 선도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공장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2월에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최근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원산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신발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지방의 크지 않은 공장이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공장으로,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공장으로 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신발생산에서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색이 고상하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미감에 맞으며 가볍고 견고함을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틀어쥐고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공장에 불쑥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신발풍년을 보았다고, 공장에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질좋은 신발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흡족하고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오늘 원산구두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들모두가 좋아하고 먼저 찾는 신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3. 북남관계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며

북과 남의 공동의 경사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8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이라고,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이라고,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를 계기로 1월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북남고위급회담에서는 남조선에서 열리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적인 개최와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폐막식에 참가하여 민족의 대사를 축하해주었으며 민족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도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내외의 커다란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측예술단의 축하공연과 응원단의 경쾌한 녀성취주악대의 입촌식, 《아리랑》의 노래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통일기를 앞세운 북남선수들의 공동입장, 태권도선수들의 시범출연 등은 올림픽경기대회의 분위기를 이채롭게 고조시켰고 조선민족의 강렬한 통일념원과 의지를 온 세계에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2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을 만나 이번 북측대표단의 방문이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불씨로 되였다고 하면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정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나 당사자들끼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공동의 번영을 위해 한걸음한걸음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관계개선의 방향을 제시해주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월 12일 남측지역을 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표단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참가와 청와대방문을 비롯한 활동내용,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남측고위인사들과의 접촉정형, 이번 활동기간에 파악한 남측의 의중과 미국측의 동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표단의 귀환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금후 북남관계개선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대책들을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남측지역에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축하공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돌아온 삼지연관현악단성원들을 만나시여 훌륭하고 감동적인 공연활동으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과 민족의 화합을 념원하는 우리 북녘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남녘동포들에게 기쁨을 더해준 그들의 공연성과를 따뜻이 축하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에 의해 열려진 화해와 단합의 길을 따라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예술단을 비롯한 남측의 사절단들이 련이어 평양으로 찾아왔다.

력사적인 만남을 이루시여

온갖 풍파를 맞고 보낸 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흩날려버리고 끝없는 환희와 희망을 불러오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북측지역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 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다시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북측지역에서 다시한번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판문점 남측지역의 회담장소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함께 손잡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는 모습은 조선민족사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감동깊은 화폭으로서 온 세상

을 커다란 충격과 경탄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랭전의 산물인 오랜 분렬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력사의 의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담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분단의 상징이고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매우 의미깊은 상봉을 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특별한 곳에서의 만남은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을 축하하듯 날씨도 화창하다고 하면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회담에 앞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평화의 집》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2018. 4. 27》**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결과 긴장의 땅이였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북과 남에서 각각 준비한 백두산과 한나산의 흙으로 합토하고 대동강과 한강의 물을 함께 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몸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고 소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문재인대통령과 기념식수를 하시고 표식비 제막포를 벗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중한 이 뿌리를 덮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며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문재인대통령의 명의로 된《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발이 새겨진 표식비가 소나무옆에 세워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시대와 력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담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였으며 판문점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였다.

선언문에는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되였다.

또한 북과 남은 북측이 취하고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론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통일의 환희를 다시금 안겨주었다.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TV로 시청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감격스러운 장면이다, 평화의 문이 활짝 열렸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력사의 순간이다, 조선민족의 혼은 70년세월이 흘러도 끊을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깨달았다고 하면서 세계사에 길이 남을 력사적합의를 이루어내신 북남수뇌분들께 진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린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도 성명과 담화들을 통하여 판문점선언은 70년이 넘는 분단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북남관계를 한층 전진시켰다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은 북남수뇌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일제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있다,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주요외신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북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쪽을 방문하였다, 엄청난 순간, 류례없는 장면 등으로 신속히 보도하였다.

또다시 판문점에서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29일만인 5월 26일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현재 북과 남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월 12일로 예정되여있는 조미수

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민족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 기록되게 되였다.

평양에로 이어진 북남수뇌상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 18일 력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연도에서 10만여명의 평양시민들이 동포애의 정을 안고 환영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 내외분들을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 안내하시였다.

력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회담이 9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을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였다.

회담에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정확히 리행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를 실행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정립하였으며 북과 남이 당면하게

취할 몇가지 실천적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이 극화되던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을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진지하게 의논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력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시고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선언에는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는데 대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하여가 반영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하여 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문재인대통령과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꿈이 담겨져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평화와 번영에로 향한 성스러운 려정에 언제나 두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 나아갈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흔들림없이 이어져갈것이라고 확언하면서 지난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은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 19일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족의 력사와 문화에 깊은 자욱을 새긴 《아리랑》의 노래선률이 울리는 속에 대형통일기가 게양되였고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이 펼쳐졌다.

판문점상봉의 뜻깊은 순간순간들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이 4.27의 거대한 의의를 다시금 새겨주는 속에 경기장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더욱 차넘치였다.

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과 만나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문재인대통령의 지칠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시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은 동포애의 정으로 자기들을 따뜻이 맞아주고 극진히 환대해준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적미래를 앞당겨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 20일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조선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여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전경, 련련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

문재인대통령과 백두산천지호반을 거니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문재인대통령과 삼지연못가에서 산책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조선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음이 온 겨레가 모두 찾는 새시대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백두산정에 오른 력사의 순간을 기념하여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으며 천지에 내려가시여 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시였다.

백두산의 장군봉과 천지호반에서는 북과 남의 인사들이 서로 어울리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의 못가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산책하시며 환담을 나누시였다.

조선의 신문, 방송들은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에 대하여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2018년에 들어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불신과 론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를 타결하는 새로운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대결과 단절의 시대에서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전환점으로 되였다.

4. 세계의 초점을 모은 대외활동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조중친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동지의 초청으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거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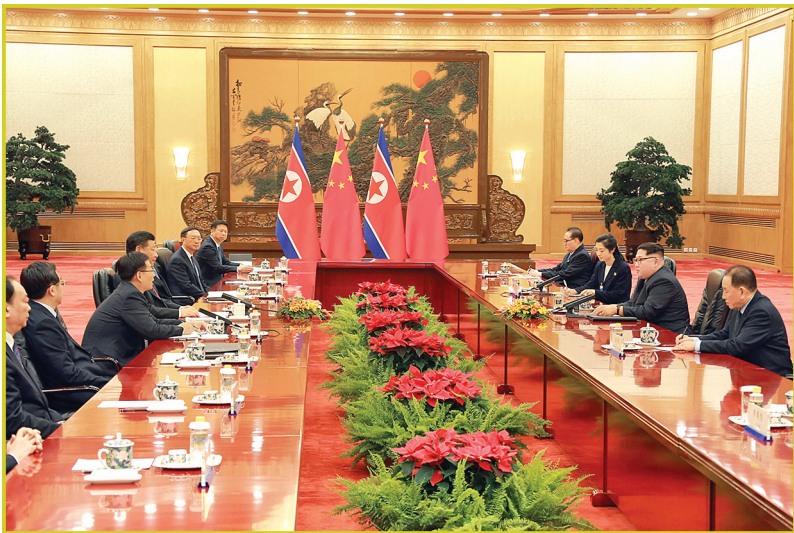
습근평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첫 외국방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의 안내를 받으시며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6일 인민대회당에서 습근평동지와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조중친선의 귀중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놓으려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를 비롯한 중국동지들과 자주 만나 우의를 더욱 두터이하고 전략적의사소통,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하여 조중 두 나라의 단결과 협력을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습근평동지는 최근 조선반도정세에서 긍정적변화가 나타나고있는 것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전략적결단과 조선당과 정부가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6일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습근평동지가 인민대회당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연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조중친선의 뿌리를 몸소 마련하시고 품을 들여 소중히 가꾸어오신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의 활동을 수록한 화면편집물을 시청하였다.

연회에서는 먼저 습근평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7일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가 낚시터국빈관 양원재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특별한 오찬을 마련하고 초대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동지와 의미있는 담화를 나누시였다.

이어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중국의 차문화에 대하여 소개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습근평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습근평동지사이의 회담이 7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조중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승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긴밀한 고위급래왕과 조중 최고지도부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이 전례없는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조선반도주변정세추이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고 전략적기회를 틀어쥐고 조중사이의 전술적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강화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동지의 이번 방문은 중조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자신과 중국당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룩한 합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3월에 진행하신 첫 중국방문이래 중조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의사를 소통하고 조률하기 위해 친히 중국에 오신데 대해 다시한번 사의를 표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중국은 친선적인 린방으로서 조선반도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최근에 취하신 중대한 결단과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인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여 습근평동지가 연회를 마련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축하연설에서 **김정은**동지의 이번 방문은 위원장동지와 조선당중앙이 중조관계 특히 두 당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을 고도로 중시하고있으며 우리 쌍방의 중요한 공동의 합의를 리행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는 전세계에 전통적이며 공고한 중조친선을 다시금 과시하였으며 중조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답례연설에서 습근평동지와 친근한 중국동지들을 40여일만에 다시 만나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고 회포를 나누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중국

당중앙의 따뜻하고 친절한 환대와 극진한 관심에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과 같은 위대한 린방, 중국동지들과 같은 미덥고 진실한 벗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장정에서 친근한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8일 오전 또다시 습근평동지를 만나시고 해변가를 거니시며 담화를 하시였으며 이어 습근평동지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오찬에 앞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습근평동지는 중국의 차문화를 보여주는 기교를 감상하시고 중요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찬이 끝난 후 습근평동지에게 중국체류기간 성심성의를 다하여 각별히 환대해주고 중대한 사업과 관련한 진정어린 고견을 들려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정을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고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습근평동지사이의 회담이 19일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당과 정부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를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두 당사이의 전략적인 협동이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현실을 대단히 만족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보다 긴밀한 친선과 단결, 협조의 관계를 더욱 발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해변가를 거니시며 담화를 나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중국의 차문화를 보여주는 기교를 감상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시켜나갈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시여 조선반도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 평화와 안정의 궤도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였다.

습근평동지는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조선측의 립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역할을 발휘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습근평동지가 19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축하연설에서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는 중조 두 당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을 고도로 중시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발전시켜나가려는 위원장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중조 두 당과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고 말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중국과 조선은 친근한 벗과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단결하고 협조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의 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답례연설에서 조미수뇌상봉의 성과적인 개최로 조선반도와 지역에 새로운 력사적흐름이 태동하고있는 시기에 습근평동지와 친근한 중국동지들과 또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습근평동지가 그처럼 분망한 속에서도 이렇듯 극진하게 환대해 맞아주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조중이 한집안식구처럼 고락을 갈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습근평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부단히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연회에서는 중국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20일 낚시터국빈관에서 또다시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찬에 앞서 습근평동지와의 단독담화에서 현 정세와 절박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의견교환을 하시였으며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찬을 마치신 후 습근평동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속에 훌륭하고 만족한 방문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중국당과 정부가 매번 각별한 마음으로 뜨겁게 맞아주고 환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일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대농업기술종합전시쎈터, 잎남새재배기술연구쎈터, 열매남새재배기술연구쎈터, 도시농업연구쎈터, 주민지구농업응용전시쎈터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의 연구집단이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관을 기념하여 **《당신들이 이룩한 훌륭한 연구성과에 깊이 탄복합니다. 김정은. 2018. 6. 20》**이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자기들이 재배한 화초들을 선물로 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베이징시궤도교통지휘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참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베이징시궤도교통지휘쎈터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쎈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쎈터주임의 해설을 들으시며 베이징시지하철도건설력사전시장과 지하철도사령지휘쎈터, 자동표판매 및 검표체계감시쎈터를 돌아보시면서 베이징시궤도교통지휘쎈터의 자동화수준이 높고 통합조종체계가 훌륭히 구축된데 대하여 경탄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쎈터가 앞으로 세계적인 교통지휘쎈터로 더욱 비약하며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를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로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률전서동지를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총서기동지가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률전서동지를 자신의 특별대표로 파견하고 당 및 정부대표단을 보내준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존경하는 습근평동지 그리고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장 신뢰하는 친선적인 린방에서 온 귀중한 동지들을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이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영접하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커다란 기쁨과 긍지속에 맞는 가장 큰 국가명절을 계기로 이루어진 습근평총서기동지의 특별대표인 률전서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새로운 정세하에서 날로 훌륭히 강화발전하는 불패의 조중친선을 다시한번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률전서동지는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어주신 중조친선은 지역정세의 변화와 력사의 풍파를 이겨내고 오늘 두 당 최고령도자들의 특별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더욱 두터운 관계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환영하는 연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승화되고있다고 하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추동해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9월 10일 률전서동지가 인솔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위하여 환영공연과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세차례의 조중수뇌상봉과 회담, 중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조선방문은 날로 확대강화되는 조중친선의 력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였다.

조로친선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5월 31일 백화원영빈관에서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를 만나주시였다.

석상에서 라브로브외무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친서를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뿌찐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이어 진행된 담화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흐름과 전망에 대한 조로 최고지도부의 의사와 견해가 교환되였으며 두 나라 정치경제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라브로브외무상은 조선이 북남, 조미관계를 잘 주도해나가며 실천적인 행동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안정국면에 들어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회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담과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조선의 결심과 립장을 로씨야는 전적으로 지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담화에서는 또한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앞으로도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70돐이 되는 올해에 고위급래왕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며 특히 조로 최고령도자들사이의 상봉을 실현시킬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함께 경축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왈렌찌나 이와노브나 마뜨비옌꼬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을 만나주시였다.

마뜨비옌꼬의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일정에 대하여 깊이 관심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이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축하의 인사와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대통령과 로씨야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과 정부, 인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과 담화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에 대한 로씨야지도부의 의중과 립장을 청취하시고 정세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조선반도지역과 세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데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함께 해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또한 선대지도자들이 마련해주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의회호상간 협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밀접히 하고 확대강화해나갈데 대한 두 나라 최고지도부의 립장과 의지가 피력되였다.

꾸바의 친선사절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가 11월 4일 조선을 방문하기 위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머나먼 대륙과 대양을 넘어 조선을 방문하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4일 오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단독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면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인민의 전통적인 우정과 신뢰, 친선단결의 불패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각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두 나라 당과 국가활동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호상 통보하시고 그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시였으며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를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토의하시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조선로동당과 꾸바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되였으며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를 같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베르무데스동지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여 4일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환영연설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의 이번 상봉이 두 나라 친선관계를 영원히 계승해나가려는 의지를 과시하는 분수령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과 꾸바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굳건히 한 전호에 서있다고 하시면서 강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꾸바인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친선적인 꾸바당과 정부, 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절대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과 꾸바사이의 전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5일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초청하시여 또다시 상봉을 하시고 담화와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호상 자기 나라의 형편을 통보하시고 사회경제발전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시였으며 두 당, 두 나라의 당활동과 사회주의건설, 조선반도정세와 국제관계분야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을 나누시였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깊이 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와 함께 5일 저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일 조선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

하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를 바래워주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언제나 꾸바인민과 당신곁에는 자신과 우리 당과 인민이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귀로의 안녕을 축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기치를 함께 추켜든 이 손을 절대 놓지 말고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전진시켜나갈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의 조선방문은 조선과 꾸바사이에 맺어진 형제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발

전시키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단결을 굳건히 다져나가는데서 력사적분수령으로 되였다.

싱가포르공화국 방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시고 6월 10일 대통령궁전에서 리 시엔 룽수상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싱가포르공화국을 방문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모든 조건과 온갖 편의를 제공하여준 싱가포르정부의 성의있는 협조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싱가포르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을 조미수뇌회담장소로 선정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력사적인 이번 조미수뇌회담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석상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교를 깊이하면서 폭넓은 교류와 협조를 활성화하여 쌍무관계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6월 11일 싱가포르공화국에 체류하시면서 시내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싱가포르의 자랑으로 손꼽히는 대화초원과 세계적으로도 이름높은 《마리나 베이 쌘즈》건물의 지붕우에 위치한 《스카이 파크》공원, 싱가포르항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리나 베이 쌘즈 》건물의 전망대에 오르시여 시내의 야경을 부감하시면서 싱가포르가 듣던바대

싱가포르공화국 수상과 담화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싱가포르공화국의 여러 대상들을 참관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건물들마다 특색이 있다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싱가포르항으로 가시는 길에 《쥬빌리》다리우에서 싱가포르의 도시형성전망계획과 듀리안극장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참관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경제적잠재력과 발전상을 잘 알게 되였다고, 귀국에 대한 훌륭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싱가포르의 정부간부들이 밤늦게까지 동행하며 친절히 안내하고 소개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조미관계의 새 력사를 개척한 세기적만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합중국 대통령 도날드 제이. 트럼프와 6월 12일 싱가포르의 쎈토사섬에서 조미 두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신 다음 담소를 나누시며 회담실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헐치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력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였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단독회담에서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

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였다.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대표단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적대적과거를 불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수뇌회담이 조미관계개선에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초부터 취하신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과 몇개월전까지만 하여도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였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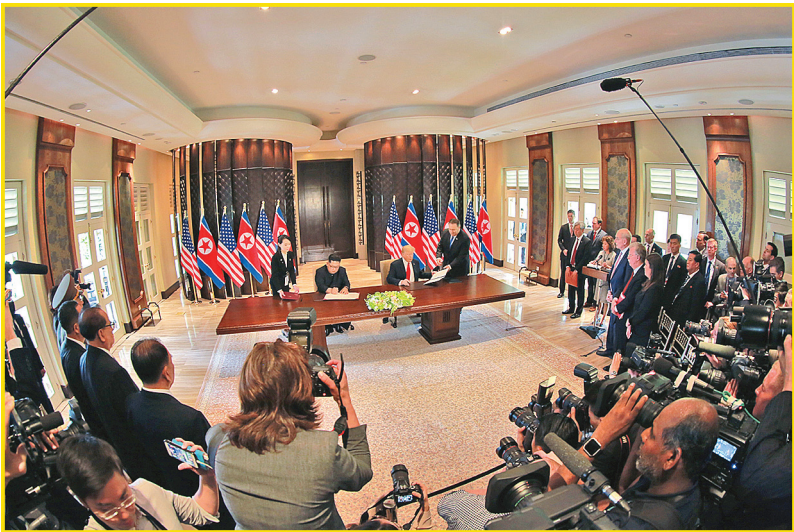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였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량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제기한 미군유골발굴 및 송환문제를 즉석에서 수락하시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합중국 도날드 제이. 트럼프대통령과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시면서 오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력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미합중국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미합중국 대통령과 조미공동성명에 서명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으며 트럼프대통령도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여주실것을 초청하였다.

이러한 초청은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쾌히 수락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세계에 폭풍같은 격정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은 물론 온 세계는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은 《새로운 력사창조》, 《력사적인 사변》, 《세계를 35분간 정지시킨 조미수뇌단독회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성명》 등으로 평하였다.

또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들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추동하고 지역에서 보다 긍정적인 정세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결단》, 《최근 조선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의지의 표시》,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와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에게 다시한번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등의 내용으로 성명과 담화들을 발표하면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평하였다.

2018년의 **김정은**최고령도자

집 필 : 김금희
편 집 : 안철강
편 성 : 방성희
교 정 : 김명숙
낸 곳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 주체108(2019)년 11월

ㄱ- 1982191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korean-books.com.kp